

내용과 동일하여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⁹⁾ 하지만 향후, 중국이나 일본 등과 FTA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외국업체의 입찰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예상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국제입찰이 실시되므로 외국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국내업체와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② 지방금고 분야

지방자치단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방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는 외국은행도 포함되므로 외국은행이 지방금고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금고지정도 가능하다. 현재 신한은행, 시티은행 등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다수 지정되어 있다. 다만, 지점설치 및 인프라(On-Line망) 구축에 장기간(10여년)이 소요되므로 지방금고 분야에서 FTA로 인한 즉각적인 영향은 기대되지 않는다.

3) 지방세 분야

①자동차세 관련 분야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대외무역의 이득(수출 10.9억 달러 증가, 수입 0.4억 달러 증가)이 예상되나, 자동차세율의 구간 축소(5단계→3단계)에 따른 지방세법령 개정이 불가피하고, 세율 인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자동차세가 약 1,000억원 정도 감소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②농·어업 및 축산업 관련세제 분야¹⁰⁾

감귤·포도 등 과일류 및 농업부문 적자폭 확대, 어업부문 생산 감소, 소득수준 하락 등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선진화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경우에도 향후 15년간 약 4,664억원의 생산감소 등 축산업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축산업의 품질 및 가격 경

9) 조달시장은 시도만 개방되고 시·군·구는 개방에서 제외되며, 공사의 경우 244억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1.9억원 이상만 개방된다.

10) 농업(축산업 포함)의 경우 향후 15년간 2.3억원의 수입증가, 연평균 6,698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어업의 경우 1,174만 달러 수입증가, 62만 달러 수출증가 및 연평균 281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